



우리나라보다 3배가 높은 영국에서의 생활

# 비싼 물가로 생긴 일

이창곤 | 한겨레 사회부 기자

영국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 생활하다 보면 많은 불편을 겪게된다. 물가는 국민 소득에 비례한다고 그런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렇듯 외국생활을 하면서 높은 물가에 적응하려다 보니 몇 가지 생존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한다.

## 지우개 하나가 2천원

영국 런던 물가는 가난한 이방인에겐 공포다. 보통 우리의 2.5배 수준이라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서너 배가 넘는다. 특히 필름, 배터리, 아이들 학용품 등 공산품은 한마디로 기가 막힐 정도다.

자그마한 지우개가 하나에 우리 돈으로 2천원이 넘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전화비, 가스비는 또 얼마나 비싸냐? 공중전화 한 통 거는데 기본이 20페니(450원)이고, 이 동전이 없으면 꼼짝없이 1파운드(2,150원 가량)를 넣어야 한다.

필자가 체류하고 있는 중부도시 버밍엄은 조금 낫다고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억울해 한다. 어른의 경우 버스 요금은 1파운드(대략 2,150원), 아이들은 그 절반에 이른다. 그나마 자주 오고 편리하면 다행이지만, 길어서 겨우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

은 잡아야 한다. 기실 한국과 비교해볼 때 일상생활에서 영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란 느낌을 받기란 쉽지 않다.

물가는 물론이며, 각종 서비스 및 기술 수준, 인터넷 환경, 주민 편의시설 및 규모 등 생활편의 쪽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견줘 한마디로 좋은 걸 찾아보기 힘들다.

## 영국 생활에서의 생존방식

이들 나라에서 선진국을 느낄 때는 병원에 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올 때(물론 여기서도 한번 치료받기 위해서는 2시간 가량은 기다려야 하지만), 혹은 텔레비전에서 총리와 의원들이 격렬히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물건을 사기 위해 채리티 숍(charity shop)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 일용품을 값싸게 팔아 제3세계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게)을 갈 때 등이다. 즉 합리와 토론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거

의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의료제도, 일상생활화돼 있는 기부의식 및 문화 등 좀 더 깊숙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각설하고, 이렇듯 높은 물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나름의 생존비법을 낳게 한다. 시장을 봐야 할 때는 대체로 소매상들이 이용하는 새벽도매시장을 이용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할 때는 일단 채리티숍이나 카부츠 세일(자신들 집에 쓰다만 물건을 드넓은 공터 등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 서로 내놓고 파는 형태)을 이용하는 식이다. 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잡자는 방만 들어가게 하거나, 시간을 일정시간마다 켜졌다 꺼졌다하게 하는 방식 등이다.



### 뜻밖의 바가지 머리가 나이스 컷

집에서 이발하는 것도 이런 생존방식 중 하나다. 머리감기는 것 없이 간단히 컷트만하는데 기본 10파운드 수준, 그러나 솜씨도 별로이다 보니 이 곳 한국인 부인들은 6개월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미용사가 된다. 우리 집도 한국에서 보내 준 이발기계를 이용해 아내가 식구들의 머리를 깎는다.

이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를 들자면 얼마 전 아내가 집안 식구들 차례 차례 앉혀놓고 머리를 깎았는데 초등 4년인 큰 아들 녀석의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잘라 바가지 머리가 됐다.

특히 앞머리를 뒷머리처럼 가지런히 맞추

어 잘라버려 한때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어리버리한 역할을 한 연기자 마냥 한마디로 웃기게 되었다. 아들은 내일 어떻게 학교에 가느냐며 이런 머리로 가면 영락없이 놀림감이 된다며 징징짖다. 학교 마친 뒤 미용실에 가다시 깎도록 하겠다며 학교로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걱정이 돼 서둘러 집에 오니 의외로 녀석의 얼굴이 밝아 보였는데, '미용실 가자는 얘기가 쑥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오늘 어땠냐고 하니, 녀석은 환하게 웃으며 '아빠, 애들이 제머리를 보고 다들 나이스 컷이라고 해요' 라며 어떤 아이는 어디서 그런 머리를 잘랐느냐고 다투어 물었다며, 아주 자랑스레 했다. 뜻밖에도 바가지 머리가 바로 영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리스타일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가 살고 있는 한 선배가 이렇듯 물가 높아 못살겠다는 필자의 하소연을 접하자, 자신도 미국에 왔을 때 놀랜 적 있는데, 어느샌가 적응하고 있다며 물가는 아무래도 그 나라 국민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그러려니' 하라고 충고했다.

이 풀이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즉 소득을 올려야 물가에 맞춰 적응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돈 한푼 못 벌고 그저 쓰기만 하는 신세이니 솔직히 '한국이 살기 좋아란 탄식만 나올 뿐이다.